

# Memories of Greece

( 그리스 여행기 #1 )

2017년 5월1일 부터 5월 13일 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족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는 75%가 험준한 산악국가이고 인류 최초로 투표가 행해 진 곳이라고 합니다.

땅이 좋지 않아서 올리브와 포도를 재배하여 곡식을 사 들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후 20개월 되는 '에밀리'가 탄 유모차를 교대로 밀기도 하면서 아테네의 거리를 왕래 하였습니다.

바퀴 외에 다른 부분은 모두 나무로 만든 자전거를 두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집 벽이 파란색으로 된 곳은 도시를 지었을 당시 바람 막이를 하느라 길을 꼬불 꼬불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 3시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0시에 저녁식사를 하기 때문에 늦잠자고 아침에는 바로 출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 “엄마! 저것은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같이 유명한 곳이에요”

장남이 가리키는 언덕 위에 유적지가 보였습니다.

이튿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는 각자에게 iPad 한 개를 목에 걸도록 나누어 주면서 현장으로 안내 하였습니다.

그 유적지는 파르테논 신전이었는데,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서 있었고, 아테네를 지켜 준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왕도, 왕자도 아닌 '피리클레스'는 선출된 지도자였는데, 그의 사상과

지식을 완전히 쓸어 신전을 지어 아테네 여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근처에 있는 산에서 채굴한 대리석으로 8년에 걸쳐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을 건축 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10미터 되는 46개의 기둥이

복원팀이 한 곳에서 230개의 낙서를 발견하였는데, 항해에서 살아 돌아온 선원들이 그들의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파르테논 신전

한 것이 감사하여 쓴 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만큼 그들은 아테네 여신을 숭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87년 9월26일 파르테논 신전 안에 쌓아 놓았던 화약더미

붙어서 파괴되어 그때의 흔적은 사라지고 사방으로 기둥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전에 있던 그 유명한 조각들의 일부는 1806년 토마스 브루스 경이 오스만 제국의 해락

얻어 1811년에 런던의 대영 박물관에 매각한 후 그곳에서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는 그 당시 신전의 실제 모습을 곳, 곳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 갔다고 하였습니다..

파트테온 신전의 근처에 그 신전의 설세를 일리기 위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원래의 박물관의 터는 훑이어서 그 터위에, 다시 건축한 박물관은 본래의 터 보다 훨씬 높게 유리로 바닥을 만들어 훑바닥을 보면서 다닐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특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리 바닥을 덮지 않은 한 공간이 있어서 그때의 흙 바닥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흙바닥에는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던져 넣은 동전이 가득 하였습니다.

50여명의 국민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 있는 학생들은 산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 2009년에 개장한 박물관을 관람하였습니다.

출입 문 입구에서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을 옮기는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주전 4000년 부터 지하에서 발굴한 조각들을 박물관의 벽면에 원래의 작품이 있었던 곳과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전시해 놓았는데, 발굴했던 원 유물이 없는 곳에는 영국 박물관에 보관한  
원본의 원형대로 복원한 것을 그 부분에 연결해 놓아서, 다소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복원 된  
조각품이라고 하였습니다.

Acropolis Museum 에 갔을 때 벽면의 윗편에는 남아 있는 작품의 조각을 붙이고, 아랫 편에  
는 그당시의 원본 그림을 그려서, 원본의 작품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였습니다.

조각의 다리가 잘려진 곳에는 잘려진 다리 높이 만큼의 기둥을 세워, 원래의 높이가 되도록  
보완하였고 머리만 있는 조각은 기둥을 세워 머리가 있는 위치에 달아 놓았습니다.  
, 손 하나만 우뚝 세워 놓은 곳도 있었는데, “만일 그 손이 박물관이 아닌 길거리에 있었다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손이 귀한 유물로 가치를 발휘 할 수 있는 것은 박물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물이나 사람이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박물관들을 방문하면서 아테네는 도시 전체가 유적지라는 말을 실감 하였습니다.

조각품 하나 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작품이니, 이 소중한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야 된다는 깨달음을 새삼스럽게 하였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작품 된 제가 더욱 더 하나님께 감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푸른 바다 위에 떠 다니는 크루즈를 타고 하루를 지났습니다.  
아직 두 살이 안 된 손녀 ‘에밀리’가 바람을 많이 쐬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중간 층의  
넓직한 소파에 둘러 앉았습니다.

한 직원이 방송으로 스페니시 언어를 하는 분들을 모이게 하였더니 70여명이 모였습니다.  
크루즈에서 내려 탐방 할 때 안내자가 필요한 분은 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을 받았고, 프랑스어,  
영어 등 몇 부분으로 그들의 언어에 따른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 안내자가 부러웠고, 그 안내자는 회사의 보물 같았습니다.  
우리는 영어 안내자를 따라 섬에서 내렸습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는 산 마을을 가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로 당나귀를 이용하여 물건  
을 실어 나르거나 타고 다녀서 ‘당나귀가 자동차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닷가에는 그들의 자동차 역할을 하는 당나귀 몇 마리가 대기 하고 있  
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섬에는 쓰레기 수거차와 앰뷸런스 외에는 아예 차가 없는 곳이고, 응급시에는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닷가에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맞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지루하기 쉬운 크루즈의 공간 안에서 '에밀리'는 작은 장난감 공을 이곳 저곳으로 던지는데, 어떤 때는 공을 꺼내기 힘든 곳에 들어 가기도 하였지만,

막내 아들은 그것이 힘든 것은 고사하고 '에밀리'가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서 기쁨으로 주고 받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오전 7시 30분경 우리의 가이드가 될 '야니스'가 닥아왔습니다.

밴으로 갔더니 운전석 바로 뒷편에는 갖가지 파일과 간식거리를 가득 담아 놓은 바구니와 음료수들이 있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각자가 시장기를 해결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절약된다는 측면에서 반가웠습니다.

운전석 옆에 가이드 '야니스' 가 앉아 있었고, 그 바로 뒷 자리에 딸이 앉으면서

"내가 가이드는 아니지만 여기에 앉아도 되겠느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약하는 것 부터 모든 것을 딸이 주관 했지만, 새로운 가이드를 따라 여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했던 말이고 모든 식구가 잘 따라 주는 것이 감사 하였습니다..

밴을 타고 가면서 가이드 '야니스' 는 길에 전개 되는 건물들과 지역들을 소개 하였습니다. 길가에 있는 아담한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것은 철로 만들었는데 '만국박람회'에 전시 했던 이 후로 그 곳에 옮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15일간 올림픽 때 사용 했던 골프 코스를 가리키면서 "그 후로는 다시 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올림픽 코스가 있는 곳을 가면서 올림픽에 따른 안내를 하였습니다.

주전 490년 아테네 북 동쪽에 있는 마라톤에서 그리스의 명장 밀티아데스가 침략해온 페르시아 군을 격파 했을때 아테네의 병사가 그리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약 40km를 계속 달려 "우리는 이겼노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졌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고사를 본 따서 1896년 근대 올림픽 제1회 아테네 대회 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육상의 마라톤에서 아테네의 올림픽 스타디움 까지의 코스를 달렸다고 합니다.

( 세계 대 백과 사전 참조 )

우리는 고린도를 지나면서 바울을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바위에 서서 설교를 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후 고린도에 살면서 기독교가 강세한 다음 고린도 전, 후서를 쓰기도 한 시점이 되었다고 하면서 고린도는 중요한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산 위에 성벽 같이 둘러 있는 곳을 지나면서,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안내된 곳은 Peloponnese Peninsula 였습니다.

항구 도시인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기찻길 다리 밑에 있는 고린도 운하는 배 한척이 지나 갈수 있는 넓이였고 6km길이 인데 그 지역을 둘러 가야 하는 배들이 운하가 계통 한 후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어서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산 언덕 위에 있는 왕궁터로 갔는데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주전 1300년에 만들었던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 중 금 같은 것은 이집트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 양쪽으로 튼튼한 성벽이 있었고 성문이 있어서 군인들이 삼면에서 지키고 있으면 적이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꼬깔모자를 엎어 둔 것 같이 보이는 원형의 거대한 왕의 무덤 속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덤이라고는 하지만 속은 텅텅비어 있었는데, 지진이 많은 그 곳에서 3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 될수 있었던 것은 사방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지혜에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 그리스 여행기 #4 )

바다로 둘러 싸인 그리스에서는 제가 좋아 하는 멀치, 새우, 오징어 같은 것을 맛있게 튀긴 것과 홍합 찜 같은 것이 풍성하여, 장거리 여행 때 자칫 잊기 쉬운 입맛을 돌구어 주었습니다.

가이드는 우리를 그 유명한 Epidavros 연극장으로 안내 하였습니다.

주전 4세기에 지었던 미디움 사이즈의 연극장으로, 주전 6세기 부터 연주를 시작 했다고 합니다. 14000명이 입장 할 수 있는 원형 연극장에는 윗쪽으로 114계단이 있었는데, 저의 사돈 마나님이 어린 '에밀리'의 손을 잡으시고 정상까지 오르 내리셨습니다.

동그렇게 지어진 연극장에는 아래에 표시된 작은 원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 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으므로 음향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공연이 가능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동그라미 안에 서서 자기 소리가 높은 곳 까지 울리는가?

시험 하기도 하였습니다.

"엄마 노래 한번 하세요" 딸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딸 내외, 장남, 작은 아들의 식구, 사돈 마나님 까지 동행하셨고 외국인들이 공연장의 꼭대기 부분에 30여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은근히 저의 기쁨을 표현 하고 싶어서  
그 동그라미 안에 섰습니다.

노래를 사전에 준비 했던 것도 아니어서,  
우리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  
'에밀리'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잘 자라 '에밀리' 야- 앞 끄들과 뒷 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데.." 라고  
생각나는 대로 노래를 하였더니, 관객들이  
박수로 화답 하였습니다.

" 엄마, 끝 까지 잘 들렸어요 "

장남이 닥아와서 말 했습니다.

며느리가 '에밀리'를 안고 와서

뽀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때의 장면을 딸이 찍은 사진입니다)

연극장, 호텔, 요양소 모두 모여 있는 유적지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있을때 그곳을 지나가던 외국 관광객 두 사람이 "네 노래 참 잘 했다"는 칭찬을 하여서 식구들이 함께 기뻐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 다녀서, 길 바닥의 돌들이 반질 반질 한 곳이 많았습니다.

차로 이동 할 때이면 파란 나무들 사이의 계곡들도 좋았고, 모든 집들의 바탕이 흰색인 위에 지붕은 짙은 오렌지 색깔로 통일하여 더욱 돋 보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마다 만나는 가이드들을 보면서 그 내용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도 좋았지만 웃는 모습으로 설득력 있게 우리를 대하는 그 자세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대 올림픽이 있었던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때이나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올림픽 기간에는 평화를 유지하자는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전 700년-796년에 그들은 복싱 할 때, 옷을 모두 벗은 채 올리브 오일 바르고 경기를 한 후 목욕하는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5) 참가 신청자가 후보로 결정이 되면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후 출전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올림픽은 남자들의 게임이었지만, 여자를 위한 다른 게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자기의 동상을 자신이 만들었는데, 부자는 큰 동상, 가난한 사람은 작은 동상을 자기 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800 피트 되는 달리기 경주장에서 저의 장남이 달리기를 하였더니, 그것을 지켜본 차남은 '에밀리'를 데리고 천천히 뛰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멘트가 없어서 돌과 돌 사이에 흙을 판 자리에 납을 녹여서 고리 같이 연결하여 붙어 있게 하였는데, 그 후 오토만이 침략 했을 때 총알 만들 납이 없어서 건물을 무너뜨린 후 그 납으로 총알을 만들었다"고 허물어진 담장을 가리키면서 말 했습니다.

올림픽 때 1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마지막 날에는 승리자를 위해 4만명이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일색인 그 곳에 색 다른 비닐 커버를 한 온실이 전개 되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봤던 유일한 딸기 농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기나긴 다리에 밧줄 같은 것이 높이 치솟아 있었는데, 다리를 공중에 달아 놓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다리는 길고, 그 긴 것을 밧줄로 달아 놓았는데, 안전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었으나 외관상 보기에도 특이하고 좋았습니다.

다리를 통과 하는 통과료는 좌석 수에 따라 30유로를 지불 했는데, 버스는 더 많은 통과료를 지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야에 보였던 산은 온통 붉은 색이었는데, 기계가 동원 되어 흙을 체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색의 흙은 철과 알류미늄이 섞여 있어서, 체취한 흙은 배로 운반하여 분리한 후 알류미늄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산에는 붉은 색의 흙도 많고 지역에 따라 대리석과 석회암이 가득하여 천연 자원이 너무나 풍부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곳곳은 거의 봄 날씨 같았으나 높은 산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는데, 모래들이 만든 호수에 눈이 녹아 흘러 내리는 물은 농작물을 키우는데 사용 된다고 하였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와 땅이 적당하여, 누리에 57가지나 된다는 올리브 나무들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변과 산의 아름다움, 곳 곳에 있는 마을의 집들은 흰색에 오랜지 색갈의 지붕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낮을 가리는 '에밀리'가 그동안 정이 들어서 저와 손을 잡고 가는데, 우리들의 그림자가 길바닥에 앞서 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 하며 뛰어 가는 모습을 함께 기뻐 하였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의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는데, 그 호텔에서 직접 구운 빵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조금 싸 줄까?" 제안을 하기에 그 친절과 호의가 감사 하였습니다.

산 위에는 풍차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산 골짜기의 도로변 양쪽에 샷노란 Scotch broom 꽃이

끝 없이 펼쳐져 있어서 아름다움을 더 하였는데, 한국의 개나리 꽃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어 갔던 음식점은 그 뒷편이 거대한 바위들로 들로 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탄하면서 식탁에 제공했던 종이 깔판의 뒷면에 거대한 바위 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6) 지금까지 듣거나 본 적이 없었던 그 바위 위에 수도원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는 도르래를 이용하여 오르 내렸다'고 세계 대 백과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  
우리는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 갔습니다.  
적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정교회'의 희생과 노력으로 '그리스'가 지켜졌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바지를 입었으면 그곳에서 제공하는 긴 천으로 둘러서 들어 가게 하였습니다.  
눈 녹혔던 물과 빗물은 식수로 하고, 채소 올리브 같은 식물을 재배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의 그림들이 그 안의 사방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처소의 첫째 방에는 신자가 들어 가고, 둘째 방에는 침례 받은 자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방에는 신부님이 들어 가도록 구분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벽이 없었지만 전쟁이 있은 후, 신부님의 일거 일동을 볼수 없도록 벽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예배 드릴때 악기 사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그곳은 아플 때 치료하는 병원의 역할도 하였고, 옛날에는 수도원이나 교회에서만 글을 배울수  
있어서 평민들은 문맹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수도원이 지금까지 유지 되는 것은 기부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산과 같이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바위들은 옛날에는 바다였으나, 지진이 난 후 바다 밑에 있던  
협곡들로 강물이 흘러 오면서 바다의 모래가 협곡에 쌓이게 되었던, 석회암이 녹아서 콘크리트  
같이 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지진이 난 후 밑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서 있는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위 중간에 베란다 같은 곳이 있었는데 지금도 수도사 한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헐멧? 이라는 수도사가 1895년에 사망하였는데,  
그는 20세에 거대한 바위의 중간 쯤 뚫려 있는  
구멍에 들어 가서 살면서 인근 주민들이 갖다 준  
물과 음식으로 31년간 연명 하다가, 그 후 시신으로  
발견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관광버스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높은 산위의 바위 위에 우리 가족들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지는 광경을 보기 위하여서 아직도  
밝게 빛나고 있는 해를 바라보면서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밝게 빛나던 해가 저 멀리의 산 위에서 최후의 빛을  
발하다가 구름속으로 자취를 감춘 다음, 해는 사라졌지만  
그 여광은 오랫동안 누리에 비취고 있었습니다. (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진 수도원 )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해의 길은 날마다 이루어 지지만, 우리는 생활에 쫓기면서 살아가느라

해와 달, 별과, 구름, 하늘이 있는 것 까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산에 지는 해와 같이 인생길의 마지막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의 인생길이 석양의 아름다움을 가슴마다 느낀 그 여운과 같이, 모두의 가슴 속에 아름답게 간직되는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 그리스 여행기 #7 )

“ 엄마, 저 바위 좀 보세요..”

딸이 가리키는 곳에 산과 같은 거대한 바위가 검은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는데, 그 한면은 위에서 부터 아래 까지 톱으로 싹둑 자른듯 직선으로 잘려진 모양이었습니다.

바위에 있던 조그마한 구멍으로 물이 스며들었던 것이 얼어 붙어 바위 안에서 팽창하게 되어 잘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비로운 자연현상에 압도 당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전시관에서 그리스인들이 전쟁 할 때의 실상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평지에서 전신에 빈틈 없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서 얼굴까지 가린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몸을 가린 방패 안에는 뾰족한 칼, 긴창 두개, 화살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병사들의 사이가 한치의 틈이 없도록 방패로 막아 진렬하고 있었는데, 높은 산 위에는 적군들이 화살을 비오듯 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막론하고 그 전투에서 살아 남은 자가 거의 없었다는 참사를 화면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화살을 쏘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으로, 적군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싸웠다고 하였는데 적군이라 할지라도 맑은 정신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음에 꺼려서 만취한 상태로 전쟁에 임하였다 해설을 들으면서, 살기 위하여 죽여야 하는 전쟁의 비참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 ‘에밀리’는 부모가 아니라도 사랑해 줄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 는 말을 장남이 하더라는 말을 딸을 통하여 들으면서 각박했던 이민 초기의 삶을 회상해 봤습니다.

휴계소에 들렸더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여서 “어떻게 우리 말을 아느냐?”고 하였더니 관광객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안다고 하였습니다.

벽에는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국말이 써어 있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것을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Santorini 섬으로 가는 비행기가 수차례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이유인즉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한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섬에 있는 모든 빌딩들은 흰색이었고 가끔 있는 성당의 돔은 청색이었습니다.

그 흰색의 빌딩들을 보기 위하여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고 할 만큼 동일한 것에서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 Santorini 섬 )

그 곳에는 1천 교회가 있고 수 천개의 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14,000명이라고 할 만큼 관광객들이 봄비는 곳이었습니다.

Santorini 섬은 화산이 세번 있었는데, 주전 1600년에 크게 화산이 터져서 중간에 있는 산은 폭발해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 물이 들어 와서 바다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700대의 풍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몇 대 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철조망이 있는 곳에 비닐 봉지가 조롱 조롱 달려 있었는데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걸어 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으나, 요즈음은 집 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을 보면 관광객들의 영향인 것 같았습니다.

(#8) 길가에서 개들이 평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군데 군데에서 볼수 있었고, 당나귀 다섯 마리가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고 지나 갔습니다.

비가 안와서 바다의 물을 소금기를 뺀 다음 씻는데 사용하고, 식수는 플라스틱 통의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이는 네 개의 바퀴가 달린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미국에도 있다고 하였으나 저는 처음 목격 하였습니다.

그 섬에는 온누리에 포도밭들이 있었는데, 포도를 키우기에 적합한 토질과 기후인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1주일 동안 잘 지났는데, 장거리 여행에서 어린 아기로서는 힘들었던지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어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언덕에 있는 수도원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수도원의 곁에 있는 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부활절에만 문을 연다고 하였습니다.

그 입구에서 가이드는 오른쪽, 아래, 윗쪽으로 손을 가슴 위에 움직이면서 그들의 방식으로 소리 내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푸른 색이 맞 닿아 있었습니다.

이 섬은 화산들과 지진이 난 후 재 건축 했을 때, 좋은 건물을 지어서 아름다움을 더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호텔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 집 수리가 필요한 것은 한달 이상이 걸리도록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Akrofiri-Prehistoric Village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당나귀를 데리고 가는데, 발이 내려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 곳을 조사 한 결과

그 곳이 바로 유적지였고 수 많은 유물이 발견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적지의 현장은 화산이 폭발 한 후 용암이 흘러 나와 일시에 모든 것이 사라졌던 거대한 마을이었는데, 주민들은 일시에 사망했고, 흙으로 파 묻혀서 그 사실을 모른채 세월이 흘러간 '잊혀진 마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지진이 있었을 때 무사하기를 빌었던 '금으로 만든 염소'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화산이 터져서 전멸했던 현장으로 우리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연구팀이 연구 한 결과 그 당시에 사용했던 변기와 하수구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생활 수준이 아주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곳은 4층 건물이었는데, 우리가 안내 받은 곳은 3층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전 1700년에 그린 그림이 지금 발견되었는데, 화려하게 채색된 그 그림도 좋았을 뿐 아니라 그림 내용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섬에 비가 내리면 물이 산에서 내려 오도록 하여 물을 사용 했다고 합니다.

춤추던 남녀, 바케스에 온갖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중요한 것을 만들었는데, 청동으로 만든 유물들은 많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3천년 전이었는데 테이블과 가구들도 있었고, 4층 높은 빌딩에는 세금을 취급 했던 곳, 잔치하던 곳, 좋은 작품들이 있었던 뮤지움, 정부건물, 개인건물, 다운타운, 맨션, 큰 슈퍼마켓, 올리브,

와인, 채소, 물고기 같은 흔적들을 볼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전 1700년 화장실, 대 소변이 흘렀던 하수구가 발견되어 그들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았던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벽을 무심코 짚었더니 “손을 대지 말아라”고 가이드가 주의를 줄 만큼 유적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기에 힘썼습니다.

(#9) 유적지의 출입문이 있었던 공간은 나무로 받쳐서 유적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의 한 구석에는 항아리 몇 개가 파손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7, 8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싸우는 모습, 아프리카의 동물들의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프리카 까지 왕래 했다는 것을 추정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이드는 유적지의 유물을 발굴했을 때의 사진과 연구팀이 추정하여 만든 사진을 대조 해 가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꽂 피웠던 그들이 천재지변에 의하여 순식간에 땅 속에 파묻혔던 유적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자랑 할 것도 없고, 기약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 가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욱 다짐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안내 되었던 곳은 온 누리가 포도밭으로 둘러 있는 곳이었는데, 포도밭에는 자잘한 화석들이 많았습니다.

언덕을 오르 내리는 위험한 곳을 가야 할 때이면 사돈 마나님께서 저를 부축하시며 도와 주셨고, 저 또한 수시로 팔짱을 끼면서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도 감사 하였습니다.

이 섬에는 땅이 좋지 못하여 다른 농사는 잘 안되고, 주위의 밭에는 거의 빈틈 없이 포도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딸 내외는 그 다음에 있을 자전거 여행에 따른 자전거 점검을 하고, 막내는 전화로 회사의 손님들과 상담 할 일도 있어서 하루를 쉬기로 하였습니다.

, 저는 장남의 제안을 받아 뒷단배를 타러 갔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해서 안내 받은 곳에는 배들이 많이 정착해 있었는데, 우리가 예약한 배의 입구에서 우리들의 신발을 프라스틱 통안에 넣게 하였습니다.

신발을 벗게 하는 이유가 배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안전을 위하여서도 좋을 뿐 아니라 배안의 어디에서든지 청결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우리들도 좋고 직원들의 일 손을 덜어 주는 것이라 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돛 단배의 아랫쪽은 부엌 같이 취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승객들이 둘러 앉을 수 있도록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가정의 가족과 우리 모자 포함하여 6명을 위한

선장과 여자 직원이 함께 하는 조촐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혹시 멀미 약이 필요 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하여서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더니 씹는 것 이라고

하면서 껌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자기 소개들을 한 후 모두의 서먹 서먹 함은 사라지고

( 돛단배입니다 )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남색 제복을 입은 선장이 배를 움직이고, 상냥한 여직원이 친절하게 봉사를 하였습니다.

Santorini 섬의 둘레에 있는 산들은 거의 돌산이었고 자그마한 크기의 나무 한 두그루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지역의 바위 산인데 흰색, 검정색, 베이지색, 회색의 석회암들이 꼭 전시장에서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듯 차례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맑고 푸른 색의 바다와 돌산 위에 가끔 있는 흰색의 건물들이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 드립니다.

( 그리스 여행기 #10 )

배가 섬 가까이 갔을 때 자세히 봤더니 검은색의 바위에 자갈 같은 것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용암이 쏟아 났을 때 온도가 빨리 내려가면 돌출하는 바위가 생기게 되는데, 그 섬은 지진이 많은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다 물결에 별 같은 것이 이곳 저곳에서 빤짝이고 있었는데, 그 것은 물고기들이 호흡하느라 생기는 현상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푸른 물 위에 별같이 반짝이는 그 빛이 아름다움을 더 하여 주었습니다.

배의 윗층 한 복판에는 그물 같은 것이 펼쳐져 있어서 편안하게 누울수도 있게 하였고, 넓찍한 공간에 앉아있으니 시야의 모든 것이 한 눈에 들어 왔습니다.

저의 뒷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돌아 봤더니 운전석에 앉아 있는 선장이 그 큰 돛이 펼쳐지도록 자동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돛을 펴야 할 만큼 바람이 불었던 모양입니다.

동승한 분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치면서 돌고래가 돌출 했다고 하였는데 저는 기회를 놓쳐서 아쉬웠습니다.

그물 같은 망 사이로 올라 온 물결에 저의 발이 약간 젖었습니다.

바다의 한쪽에서 배를 멈추었는데, 예고 했던 스케줄에 따라 우리와 동승했던 분들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물이 차다"고 하면서 되 돌아 온 그들을 향하여 "저 건너편으로 가 보라"고 선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더니 30여분 동안이나 수영을 즐기고 돌아 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전날 밤 9시경 예약을 하여서, 저는 모르기도 하였지만 알아도 수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참으로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들에게 길다란 풍선 같은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슴쪽에 부착하였더니, 양쪽에 날개가 있는 것 같이 보였고 우끼 같은 역할을 하여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에 끼워서 호흡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주었더니, 두 차례 신나게 수영을 즐기고 돌아 와서는 펼쳐져 있는 망위에 누워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수영하는 시간에 우리는 여직원과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5년 전 한국에 보스와 같이 다녀 온 적이 있다고 하면서 "잡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비빔밥과 국수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을 식탁에 앉게 하더니 직접 요리 한 것이라고 하면서, 새우스파게티, 사라다, 빵, 홍합, 파스타, 우리가 볼수 있는 곳에서 직접 바베큐 한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차려 주었는데, 어느 음식점에서 보다 더욱 기억에 나는 맛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여 직원은 점심식사를 한 후 남아 있는 바베큐 고기를 바다의 물고기를 위하여 던져 주었습니다.

그 친절한 여 직원은 "22세 부터 32세가 되는 지금까지 보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곳이 돌 산이어서 특이한 경관들로 인한 관광사업이 잘 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장남과 저만이 이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 왔더니, 딸 내외는 수리점에 맡긴 자전거를 기다리고 있었고, 막내 아들 가족은 어제 못다 본 지역을 다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작은 아들 식구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림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는 몇 가지의 그림들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11) 오후 9시경 자전거가 완전히 고쳐져서 가쁜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 둘레에는 작은 섬들이 있었고 크루즈 선박이 멈추었다가 가는 산과 같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쳐했던 124호실의 앞에 있는 베란다에서 이를 전 한쌍의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친지들의 축하를 받는 장면도 봤을 정도로 해변이 아름다웠습니다.

산등성이에 있는 하얀 색같은 모두 '눈'이라고 생각 했었는데 눈도 있었지만, 이 섬의 집들은 지붕까지 흰색이어서 착각했던 곳도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내외는 다른 섬으로 가서 여행을 계속할 예정이었으므로, 호텔의 주차장에서 인사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오전 9시 50분 아테네로 향하는 비행기에 여섯 식구가 탑승을 하였는데, 비행기 아래를 내려다 보았더니 흐릿한 날씨로 인하여 검정색 섬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았고 바다와 하늘의 경계선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햇빛에 반사 되어 붉은 바위섬, 베이지색 바위산과,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 작은 섬 당나귀 5,6마리가 걸어 가는 것도 보였고, 서서히 윤곽들이 들어난 후 섬의 길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섬의 주위에는 초록색 바다가 있었고 크루즈들이 하얀 길을 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튀긴 생선들, 멸치 튀김, 오징어 튀김, 홍합 짬, 평소의 식단에서 제외되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여덟 식구가 한 식탁에서 오손도손 먹었던 추억들을 간직하게 하였던 "섬아, 잘 있거라..."  
아쉬움을 표하는 인사를 마음 속으로 하였습니다.

지진과 화산의 시련 후에 생겨난 섬이 계획된 도시를 지어서 마을들도 아름다웠고 길도 곧게나 있었으며 바다 색갈도 옥색, 푸른색, 검정색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종업원은 '에밀리'를 보더니  
종이와 색연필을 갖다 주었습니다.

통상 아기들로 인하여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직원은 아예  
에밀리를 위하여 사전에 취한 조치였습니다.

에밀리가 처음에는 황칠을 하더니  
그 옆에 있는 엄마의 지도를 받으면서 질서  
있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 '에밀리가 그린 작품의 일부 입니다.'

아테네 공항에서 막내 아들 식구들과  
포옹을 하면서 아쉬움을 안고 헤어졌습니다. ( 손녀 '에밀리'와 작품의 일부분입니다 )  
장남과 저는 공항에 마중 나온 운전자를 쉽게 만나서 호텔에 짐을 막긴 후, 아주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촌음을 아끼듯 장남이 그렇게나 가고 싶어하는 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 으로 향하면서 저의 아들이 그렇게 박물관을 좋아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 #12 ) 지금까지 박물관을 관람 할 때 마다 느꼈던 것은 작품의 파손된 한 부분 한 부분까지를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함으로써 그 당시의 실체를 느낄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전 650년 작품의 한 팔 잘려나간 여인상, 제일 오래된 동상, Artemis , 큰 항아리에 줄마다 다른 무늬로 장식한 것, 올리브오일 같은 액체 담는 항아리, 목 떨어져 나간 동상, 날개 달린 스핑크스, 발만 있는 조각도 당당하게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남자의 모양인 동상, 한 발은 앞에 있고 팔 하나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 때의 동상들마다 미소 짓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말 하였습니다.

머리 부터 발 끝까지 잘 보관된 동상을 보고 “나 이제까지 이렇게 온전한 것은 처음 봤다”고 장남이 감탄 하듯 말 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 밤을 지난 후, 독일 비행장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저보다 1시간이나 일찍 출발해야 되는 장남은 저를 안전하게 출구 까지 안내 한 다음 가려고 하였으나 시간 여유가 너무 없어서 “염려 말고 그냥 가라”고 억지로 가게 하였습니다.

장남이 타야 하는 비행기는 계단의 2층으로 가고, 제가 탈 비행기는 아랫쪽을 향하여 가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서로 “잘가라”고 인사한 후 헤어졌습니다.

해당하는 출구에 도착하여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 장남이 급하게 저에게 닥아왔습니다.

“엄마 잘 찾아 오셨네요” 말하면서 (그리스로 갔을때 기내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던 경우가 재연 될까봐) “점심 값 하시라” 고 유로 몇 장을 주고 갔습니다.

고마운 생각에 가슴이 뭉클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전화를 했더니 모두 무사히 도착하여 감사했습니다.

직장 관계로 영국, 오리건, 캘리포니아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혼자있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두 주간 동안 가족의 사랑을 나눌려고 했던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화산과 지진에 의하여 찬란한 문화를 꽂 피웠으나 모든 것이 일시에 사라졌던 그리스를 여행하면서 '기약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과 인간이 자랑 할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 저의 가족 사진 입니다 )